



광주 북구문화의 집 '착한목공소'에서 포즈를 취한 정민룡 관장은 주민들이 공간의 주인이 되는 공유 개념을 확장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

# '착한 목공소'에서 의자도 탁자도 '똑딱똑딱'

## 그들의 유쾌한 상상

### 문화판을 바꾸다

#### <3> 광주북구 문화의 집 정민룡 관장

눈 오는 21일 찾은 광주 북구문화의 집(문화의 집)은 리노베이션이 한창이었다. 소박한 카페 '소소한 하루'와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중이었다.

정민룡(43) 북구문화의 집 관장은 이 공간을 준비하며 행복한 경험을 했다. 청년 공간을 함께 꾸려보고 싶다고 찾아온 대학생 공회라씨 때문이었다. 회라씨는 초등학교 때 문화의 집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반가웠어요. 회라는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지도를 만드는 '아파트 RPG'에 참여했는데 그게 기억에 남았나봐요. 문화 시설이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진짜 실감났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금방 크잖아요. 프로그램을 거쳐갔던 아이들이 청년이, 어른이 돼 어딘가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신기해요."

목포대 대학원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정씨는 2002년 문화의 집과 인연을 맺었고 2010년 책임자가 됐다. 1998년 문을 연 문화의 집은 알찬 프로그램으로 전국에서 주목받는 공간이었다. 그는 함께 일했던 김호균·전고필씨에게 "문화가 삶과 정말 가깝고 대중적인 것"이라는 점을 배운 게 큰 자산이라고 했다.

유행 따라 어디서나 흔히 진행되는 강의 프로그램을 대폭 줄인 정 관장은 시설을 완전 오픈해, 주민들이 진짜 주

인이 되는 '공유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시설을 중심으로 기획을 하는 일이다 보니 시설의 의미나 지향점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려고 해요. 우선은 시설을 완전 오픈하는 데 주안점을 뒀어요. 기존 개념이 운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그 서비스를 그냥 받는 형식이라면 이제는 주민들이 진짜 공간의 주인이 되고, 활용 방안도 직접 모색해 보도록 하는 거죠."

지난해 오픈한 '착한 목공소'가 대표적인 공간이다. 주민들은 '자기집'의 연장을 활용하듯 목공소에 마련된 각종 연장을 가지고 부서진 의자도 고치고, 새로운 탁자도 만든다. 주민들이 개인 목공소를 하나씩 갖는 셈이다.

주말예술학교 '바퀴 달린 학교'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예술가들이 강사로 참여, 아이들과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간다. 한국화가 박문종씨가 진행하는 '땅과 예술'은 지역 곳곳의 '땅'을 찾아다니고, 건축사 김진우씨가 지도한 '어린이 건축교실' 수강생들 작품 '개미굴'은 문화의 집에 자리하고 있다. 여행과 음식을 접목한 '전라도 푸드 테라피'도 인기 프로그램이다. 음식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의미를 공부하고 그 음식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이틀있는 요리사가 아닌, 시골 할머니들의 손맛을 배우고, 그 방법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주민들이 직접 사연과 노래를 전하는 '나도 DJ' 등을 진행했던 문화의 집은 올해 '아날로그를 빌려드립니다'를 준비 중이다. 문화의 집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CD, LP를 활용해 음악감상실을 운영하는 거다. 음향기기를 가지고 출장 서비스도 나갈 계획이다. 정 관장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시민프로그램, 대인시장 '느티나무 숲'도 진행했다.

"두 개의 대형 프로젝트는 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했던 일들이 공간을 넘어 확장된 개념이라 볼 수 있어요. 대인시장을 통해서도 기획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상인, 예술가 등 사람관계에서 균형감과 중심을 잡는 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젊은 기획자들과 함께 진행한 야시장과 한평갤러리, 소풍유락 프로그램은 나름 의미있는 프

그램이라고 생각해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큰 프로젝트에 뛰어들려면 그전에 작은 부분에서라도 자기 거점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굳건한 자기 영역, 홀그라운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야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중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는 기획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숨어있음'을 들었다.

"기획자는 드러나지 않아야 해요. ~로 하여금을 지키는 게 필요하죠. 지역으로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뒤에 숨어서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론 오픈된 마인드로 늘상 흐름을 정확히 인지해 방향을 잡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건 기본요건이구요. 기획자는 '빛'을 쬐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빛, 숲빛 뭐 그런 거죠(웃음). 기획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생산자가 아니라 매개자죠. 기획을 현실로 구현해 주는 게 그들이잖아요. 빛을 잘 갖고 신뢰를 얻는 게 필요합니다."

그는 청년 기획자들과도 평가를 도모하고 싶다. 이번에 청년 공간을 만드는 이유도 그래서다. 그들과 일했을 때 누구도 생각 못한 북북 뛰는 아이디어를 내놓는 걸 보고 놀랐고, 그 아이디어의 바탕이 단순한 가벼움이 아니라 진중함과 깊은 의미라는 데서 놀랐었다. 또 하나, 문화의 전당 등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구성 구성까지 퍼트리는 역할을 할 예술대안학교는 그가 항상 꾸는 꿈이다.

주인이 진짜 주인되는 '공유개념' 확장 '바퀴 달린 학교' '...푸드 테라피' 인기 '아날로그를 빌려드립니다' 운영 준비 "기획자는 숨어서 도와주는 조력자"

로그래머라고 생각해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큰 프로젝트에 뛰어들려면 그전에 작은 부분에서라도 자기 거점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굳건한 자기 영역, 홀그라운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야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중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는 기획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숨어있음'을 들었다. "기획자는 드러나지 않아야 해요. ~로 하여금을 지키는 게 필요하죠. 지역으로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뒤에 숨어서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론 오픈된 마인드로 늘상 흐름을 정확히 인지해 방향을 잡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건 기본요건이구요. 기획자는 '빛'을 쬐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빛, 숲빛 뭐 그런 거죠(웃음). 기획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생산자가 아니라 매개자죠. 기획을 현실로 구현해 주는 게 그들이잖아요. 빛을 잘 갖고 신뢰를 얻는 게 필요합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영일 작 'Forgetting-City life 25'

'가깝고도 먼 젊은 작가전, 24일부터 금호갤러리

##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 '인간과 사회'

출신 학교와 나이, 작품 세계가 다른 광주 지역 청년작가 29명이 모였다.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는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신년 기획 광주 지역 청년작가 29인의 '가깝고도 먼 젊은 작가'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 '인간과 사회'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으며, 서양화, 한국화, 조각 등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인간과 인간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사람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 전시된다. 인간과 환경에서는 도시에서 쏟아져나오는 폐기물들이 유기되는 과정과 자연에 끼치는 영향, 문제점,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간과 사회에서는 문명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점, 그리고 도시에서 일어나는 복잡 미묘한 사회적 현상들을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참여 작가는 강동호·강은영·고마음·김단비·김동아·김명우·김영일·김윤영·김혁·김혜철·박성완·박정일·박화연·백상욱·서영기·송지운·엄기준·여훈주·윤준영·이세현·이재덕·이조흠·장원석·정다운·정호정·조해라·차효진·최요안·홍원철 씨 등이다. 전시는 설 연휴를 포함해 휴관 없이 진행된다. 문의 062-360-8436.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베를린 필 12년 이끈 이탈리아 출신 거장

## 세계적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 타계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명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81·사진)가 20일(현지시간) 타계했다.

35년간 베를린 필에서 황제로 군림했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바통을 이어받은 아바도는 학구적인 자세로 베를린 필의 사운드를 다듬고 그 위에 풍성한 예술적 색채를 입힌 지휘자로 평가된다.

1958년 쿠세비츠키 콩쿠르에서 우승해 이름을 알렸고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 음악감독, 빈 오페라 음악감독, 런던 심포니의 수석 지휘자를 역임했다.

아바도는 생전에 유럽연합 청소년 오케스트라, 구스타프 말러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했고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을 세계적인 음악 축제로 키워내는 등 세계 음악계에 큰 업적을 남겼다.



그는 1990년부터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12년간 재임했다. 2000년 위암 수술을 받은 뒤 투병하면서도 2003년부터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맡아 타계할 때까지 의욕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이탈리아의 종신 상원의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1954년 한국 최초의 민간방송으로 시작한 CBS가 2014년 창사 60주년을 맞습니다. '60세 청년' CBS는 지금까지의 역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의 60년을 향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창사 60주년, CBS의 새 얼굴입니다”

LIGHT (세상의 빛) LOVE (사랑) HARMONY(어울림)

CBS 새 CI는 미디어 스크린을 상징하는 사각 프레임 속에 세상의 빛, 사랑, 어울림의 가치를 담았습니다.